

국산 핵연료 피복관 시제품의 크리프 저항성 평가

Creep Resistance Evaluation on KAERI Cladding Tubes for Nuclear Fuel

남철, 최병권, 정용환, 정연호

한국원자력연구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150

요약

현재 대부분의 PWR 원자로의 핵연료 피복관용 재료로 사용되는 Zry-4는 고연소도, 장주기, 고온 및 고 pH 운전조건에서는 그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신형 피복관 6종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개발하였으며 다양한 제조공정에 대한 성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피복관의 크리프 변형은 고연소도 운전시 연료봉의 수명제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평가하기 위해 350°C 및 400°C 시험온도, 100~150MPa 원주응력 조건에서 크리프 시험을 수행하였다. 피복관의 크리프 저항성은 중간제조공정의 열처리 조건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나 마지막 열처리 조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었으며 응력이완 보다 재결정 열처리 조건에서 약 3배 정도 낮은 크리프 변형을 나타내었다. 합금원소 효과는 Sn의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크리프 저항성을 보였으며 어느 정도까지의 Nb 첨가 또한 크리프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신형 피복관들은 Zry-4 또는 외국 신형피복관들에 비해 우수하거나 또는 대등한 크리프 저항성을 보였다.